KB금융 女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내일 개막

KB금융그룹은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원주의 센추리21컨트리클럽에서 '제13회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는 한국여자골프 스타 산실의 대표적인 대회다.

특히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는 국가대표 포인트를 받기 위한 시즌 마지막 여자아마추어 대회로 매년 쟁쟁한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올해는 지난해 우승자이자 아마 최강자로 활약 중인 이예원(비봉고 1)과 올해 기아차 한국여자오픈에서 아마추어 1위를 기록하며 새로운 '아마강자'로 떠오른 손예빈(신성고 1), 국가대표 서어진(수성방통고 3), 윤이나(창원남중 3), 홍정민(대전여방통고 2) 등 국내 정상급 여자 아마추어 골퍼가 총출동해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이베스트證, '당구 유망주' 권보미·한지은 후원 협약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당구유망주 권보미, 한지은 선수 후원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후원 협약을 체결한 권보미, 한지은 선수는 각각 포켓볼과 캐롬 3쿠션 유망주로 알려진다. 김원규 이베스트투자증권 사장(왼쪽 첫번째)이 권보미 선수(두번째), 한지은 선수(세번째), 남삼현 대한당구연맹 회장 등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CJ제일제당, 美 미네소타주와 협력 강화 CJ제일제당이 미국 슈완스 컴퍼니 인수 이후 사업적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강신호 식품사업부문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회사를 방문한 팀 월즈(Tim Walz) 미네소타 주지사와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이사(왼쪽)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애경산업, 추석맞아 北이탈주민 가정 경주 여행 지원 애경산업은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과 함께 지난 14~15일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위한 '경주 국토사랑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애경산업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됨으로써 겪는 탈북민에 대한 편견, 경제적 문제,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명절에 고향에 갈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그리움과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이 같은 여행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애경산업

국순당 '횡성한우축제' 알리기로 지역상생 앞장

국순당이 본사가 위치한 강원도 횡성군의 대표적인 지역축제인 횡성한우축제의 홍보를 위해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국순당은 횡성한우축제 홍보 지원을 위해 대표적인 국민 약주 백세주 12만병과 국순당 대표 막걸리 브랜드인 대박 20만병 등 총 32만병의 제품에 횡성한우축제 홍보 문구를 넣은 홍보 보조라벨을 부착해 9월 초부터 전국에 유통하고 있다. 홍보 보조라벨에는 '제 15회 횡성한우축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 등 횡성한우축제를 알리는 문구를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인 횡성한우축제는 올해 15회째 개최되며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섬강 둔치 일원에서 진행된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경험지향적 창업자

이상헌의 칼럼

"창업은 업종보다 창업자 자신에 대한 분석력이 성공의 잣대다."

피터 드러커 교수가 '차별화의 법칙'에서 강조한 창업론에 대한 정의다.

소위 창업의 4요소인 창업자금, 아이템, 입지, 창업자 가운데 창업자의 실행과 사고가 창업 결과의 우선순위라는 말이다.

창업 시장에서 매년 유망 아이템과 소비 트렌드에 대한 분석 자료가 넘쳐나고 있다. 사회적 이슈와 경제 여건, 소비 형태의 변화 등 다양한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한 유망 창업 아이템이 소개된다. 그것들은 때론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때론 작위적인 목소리로 많은 예비 창업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물론 관련 전문가들이 나름의 분석 기법을 적용해 뽑아낸 것들이다.

창업 시장의 변화는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 변화와 매스미디어의 영향, 그리고 외국에서의 유행 주기별 아이템 흐름 등을 종합해 국내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다.

창업 시장의 트렌드는 실구매자인 소비 트렌드(Consumption Trend), 업종 트렌드(Trade Trend) 그리고 시장 트렌트 (Market Trend)로 구분할 수 있다.

트렌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관심 이동의 표현이자 흡입 매출의 기준이라 하겠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따라야 하는 이유는 표적 고객의 소비성을 계량화, 분석화 하는 기술이 곧 유망 아이템을 찾아내는 기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거론하는 계량화와 분석화란 소비 심리적 구매율과 구매 의향을 수치로 분석해서 정량분석에 의한 유효수치의 도출분석을 의미한다.

표적 고객의 소비성 분석은 또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공급자 측에서는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문성, 획일성,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게 되겠지만 근본적 목적성인 수익성, 즉 안정적 수익성(Safety Benefit)은 소비자의 욕구 충족지수(Point of Satisfaction Desire)에서 기인하므로 창업 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할 사항은 역시 수익구조 부분, 즉 가격 결정 요소라 하겠다.

특히 요즘같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장기적 불황에 가격파괴 전략을 구사할 경우 실제 구매고객의 만족도 및 충성지수(Index of Royalty)는 상당히 우수하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한계에 봉착해 최소한의 박리다매 이론에도 부합하지 않는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창업은 외부적 환경과 내부적 환경의 적당한 조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내부적 환경, 즉 창업자 자신의 분석이 필요하다. 창업자 유형은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한다. 경험중심형, 환경중심형, 신념중심형 창업자로써 유형별 추구사항과 집중성이 상이함에 따라 그 성과 차이도 매우 크다.

창업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창업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경험을 한 분야와 관련 있는 업종을 창업하는 '경험중심형'이라고 한다. 창업 전에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적 측면의 아이템으로 창업하는 것이 성공창업적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성공 창업은 서비스하는 아이템를 선정하고 특화 시키는 전략 또한 중요하다. 그 의미는 아이템의 차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전략과 홍보 전략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필수라하겠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것은 창업자 스스로가 최고의 경쟁력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창업 최고의, 최후의 경쟁력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대한민국학술원상에 김영환 교수 등 5명 선정

대한민국학술원(회장 김동기)은 17일 오후 2시 대한민국학술원 대회의실에서 '제64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1955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학술원상은 국내 학술연구 진흥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우수하고 독창적인 연구업적을 이룬 학자를 매년 선정해 수여한다. 현재까지 총 257명이 이 상을 받았다.

올해 수상자는 사회과학부문 2명, 자연과학기초부문 2명, 자연과학응용부문 1명 등 총 5명이다.

사회과학부문 수상자는 김영환 한양대 명예교수, 이종은 국민대 명예교수다.

법학자인 김영환 명예교수는 대표저서 '독일과 한국에서의 법철학과 형법'에서 한국의 법학이 독일의 법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분석·검토하고 한국의 법학과 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환 한양대 명예교수(왼쪽부터), 이종은 국민대 명예교수, 이필호 강원대 교수, 김지현 연세대 교수, 윤경구 강원대 교수 /대한민국학술원

이종은 명예교수는 서양정치사상 분야 석학으로 '정의에 대하여',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등의 저술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발전에 필요한 사회정의론을 제시하는데 기여했다.

자연과학기초부문 수상자는 이필호 강원대 교수, 김지현 연세대 교수다.

이필호 교수는 유기합성방법론 분야 선도적인 학자로, 원자번호 49번인 인듐으로부터 유기인듐 화합물을 합성한 후 이를 이용한 독창적인 촉매 짝지움 반응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김지현 교수는 미생물 유전체 연구에 매진, 유전변이와 적응도 간의 관계가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혀 생명진화의 원리 규명에 기여했다.

자연과학응용부문 수상자는 윤경구 강원대 교수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셀룰러 스프레이 콘크리트 기술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슬라이딩 트랙 시공에 성공적으로 적용해 시공기술 분야에 혁신적 발전에 기여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인사

◆**여성가족부** 〈임용〉 ◇과장급 △법무감사담당관 노지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보직 발령 △거대공공사업센터장 이일환 △투자기획조정센터장 송화연 △R&D평가센터장 오현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임용〉 ◇과장급 △참여협력과장 박준형

◆**일요신문** △편집국장 이성로 △비즈한국본부장 홍성철

◆**대보그룹** △이종일 부사장·기획조정실장 ◇대보건설 △박찬호 전무·토목사업본부장

◆**오나인솔루션즈** △한국지사장 이웅혁

부음

▲이남례씨 별세, 류방현(용봉동물병원장)·동석(前청주대학교 교수)·정임(원광대학교병원 간호부장)·희석(미래에셋대우 삼성WM 지점장)씨 모친상, 박미숙(KB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장)씨 시모상 = 15일 전남나주 농협 장례식장 1층 VIP실, 발인 18일 오전 9시, 061-334-4440

▲김용환 전 순천상호신용금고 사장 별세 = 강양신 씨 남편상, 김훈(동의대 한의대학장)·민·웅(법무연수원 교수)씨 부친상 = 16일 오전 8시 순천성가롤로병원 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8시. 061-900-4425

▲이전문(전 밀알장학재단 이사장) 씨 별세, 이경호(스포츠동아 스포츠부 차장)·자연·수연씨 부친상, 윤애리(크리스챤 디올 부장)씨 시부상, 안지훈(삼성전자 프로)·최성학(우리전력 대표이사)씨 장인상 = 1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 발인 18일 오전 7시. 02-3010-2000